

# 1월 5주차 Q&A — 금락 시그널과 그린란드 이슈

· 정리 2026-05-13

## 의도적 과열장에서 살아있는 신호는 단 하나, 금리뿐

박종훈의 경제로맵 세 번째 Q&A 시간. 본 회차는 세 가지 질문을 깊이 풀어준다 — Q1) 코로나 시국 같은 금락장 예측 신호는 무엇인가 (잠자는 강아지) + Q2) 그린란드 이슈 어떻게 흘러가나 (김상호\_청풍) + Q3) 덴마크 미 국제 매도 여파 (둥구둥구). Q1은 본강의 part1\_04(매권전쟁과 돈의 미래)의 거시 위기 시각을 시장 신호 차원으로 풀어주고, Q2-Q3는 본강의 미·중 패권 전쟁·화폐의 무기화 시각을 그린란드·덴마크 사례로 구체화한다.

질문자 핵심: "코로나 시국 양적완화가 추가 폭등·폭락을 이끌었듯, 현 시점에서 추가 폭락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강사가 진단하는 시장의 결론은 **이번엔 의도적 과열이라 자발 긴축 가능성이 제로**이고, 살아있는 4 신호(인플레이·노동시장·달러가치·금리) 중 앞 셋은 모두 마비됐다 — **금리만 유일하게 살아있는 신호**.

## 존 템플턴 4단계와 현재 위치

강세장은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의 4단계로 흐른다.

단계	시장 심리	행동
1단계	비관 (Pessimism)	강세장 탄생
2단계	회의 (Skepticism)	강세장 성장
3단계	낙관 (Optimism)	강세장 성숙
4단계	유포리아 (Euphoria, 행복)	강세장 죽음

지금이 적어도 3단계 낙관 구간. 신규 증권 계좌가 급증하는 단계 — 모두가 유포리아에 빠지면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 폭락한다. 다만 팬데믹 같은 외생 변수로 인한 금락은 어떤 지표를 봐도 미리 알 수 없다. 단, 팬데믹 후 양적완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추가 반등 → 연준 돈 푸는 건 강력한 상승 신호.

## 이번엔 의도적 과열 — 트럼프 중간선거 사활

이번 상승은 누가 뭐래도 의도적 과열. 24년 바이든이 대선 승리를 위해 미국 경제를 엄청난 과열로 이끌었고, 25년 트럼프 정권 잡자마자 긴축할 이유 0 → 계속 돈 푸는 중.

**2026년 11월 중간선거**가 트럼프의 사활. 패배 시 나머지 2년은 사실상 레임덕. 그래서 정권 유지하려면 무조건 중간선거 이겨야 한다. 미국 선거의 필수 방정식은 과도하게 돈 풀고 자산 시장 팽창시키는 것. 한국 지방선거도 진보·보수 막론 어느 정권이냐 과열을 일으키려 한다 — 잘하는 정권과 못하는 정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결론: **트럼프 본인이 먼저 긴축할 가능성 = 제로**. 그러면 어떤 게 시장 폭락 신호가 될까?

## 살아있는 4 신호 — 3개는 마비

강사가 분석하는 4 신호:

신호	작동 가능성	한계
<b>인플레이션</b>	마비됨	트럼프가 연준 압박해 눈·귀 가림. 전통 기준 3% 신호 작동 X. 5% 도달은 유가·천연가스 천정부지 필요 → 당장 가능성 낮음
<b>노동시장</b>	무용지물	삼의 법칙(Sahm Rule) = 후행 변수. 과거를 설명할 뿐 미래 예측 X. 노이즈에 불과
<b>달러 가치</b>	무의미	한국은 원화 하락 시 추가 폭락이지만 미국은 패권 국가. 달러 가치 하락 시 트럼프는 오히려 환호 → 신호 X
<b>금리</b>	<b>유일하게 살아있는 신호</b>	트럼프가 다른 건 압박해도 금리는 절대 무시 못 함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신호는 굉장히 강력했다.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 3%가 기준 — 그동안 미국에서 인플레이가 일어나면 절대 돈을 못 풀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연준을 압박해 봤기 때문에 이 신호는 사실상 마비됐다. 3%가 넘어도 트럼프는 올 연말까지 계속 돈을 풀라고 할 것. 5%가 되려면 석유나 천연가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야 하는데 그 일은 당장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 3 두 번째 신호인 삼의 법칙(Sahm Rule)은 강기가 짙는 그대로 학계에서도 **후행 지표 한계**가 명확히 검증됐다. **2024년 한 paper** 분석 결과 삼의 법칙은 경기 침체가 시작된 후 4개월이 지나야 유효한 신호가 되며, 1950년 이래 **최소 4번의 false positive** (실업률 +0.5%p 상승 후 침체 없었던 경우)도 보고됐다. 2024년 실제로 일시 trigger됐지만 강한 노동시장 다른 지표들과 충돌했고, 이는 이민 급증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이었다는 분석. 응답률 하락 중인 CPS 표본(약 6만 가구) 데이터 품질 이슈까지 겹쳐 Richmond Fed는 2025년 7월 주간 실업급여 청구 데이터 기반 신규 지표 **SOS(Scavette-O'Trakoun-Sahm-style)**를 발표 — 강기가 짙은 "삼의 법칙은 노이즈" 결론이 학계 평가와 정합한다.

## 금리만이 살아있는 신호 — 미국 10년물 1.5% → 4.2%

왜 금리는 무시 못 하나? **미국이 자금 조달하는 핵심 = 10년물 국채**.

시기	미국 10년물 금리
2010년대 평균	<b>1.5%</b>
2026년 1월 (강의 시점)	<b>4.2%</b>

거의 3배. 이게 만드는 문제 — **2016년 발행한 1.5% 국채가 2026년 만기**. 새로 발행하면 4.2%. 미국 적자가 점점 불어 한 푼도 값을 수 없으니 자꾸 4.2%짜리로 차환 → 이자 부담 폭증. 트럼프도 이걸 절대 무시 못 한다.

그런데 **베네티 재무부 장관**이 장기채 거의 발행하지 않고 단기채 위주로 발행하면서 장기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눌러놓은 상태. 그런 상황에서 단 약 장기채 금리가 오른다? **이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매우 크다**. 이 부분은 본강의 파트 2-1강(채권과 금리)에서 자세히.

↑ 1 회사 시점 이후 흐름은 강기가 짙은 4.2% 수준에서 정체가 아닌 미세한 추가 상승. **2026-05-08 미국 10년물 4.38%**. 5월 12-13일 기준 **약 4.42%**까지 도달 — 베네티의 단기채 위주 발행에도 불구하고 장기채 금리가 자연히 위로 올라오고 있어 강기가 지직한 위험 신호 매커니즘이 실시간 진행 중이라 볼 수 있다.

## 한국은 금리가 아닌 환율 — 1,500/1,550/1,600원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한국에선 환율이 가장 결정적**.

환율	의미
<b>1,500원 돌파</b>	1차 경제 경보
<b>1,550원</b>	압박 본격 시작
<b>1,600원</b>	완전 비상 신호

이유 — 한국은 패권국이 아니라서 환율이 올라가면 더 이상 돈을 뿌릴 수가 없다. 2025년 한국 경제가 2024년보다 나빴는데도 주가는 폭등했다. 왜? 24년이 마이너스였고 25년에 막대한 재정 지출과 한국은행 통화 정책으로 돈을 뿌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연금기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 — 원래 한국 주식 비중 15% 물이었는데 최근 **16~17%까지 초과**. 환율이 더 올라가면 이 매커니즘이 정지된다.

요약하면 미국에선 금리를, 한국에선 환율을 봐야 한다. 미래를 보는 데 결정적 변수다. 이 부분은 본강의에서도 자세히 다룰 예정.

## 그린란드 — 트럼프의 살라미 전법

두 번째 질문은 그린란드. 표면적으로는 트럼프가 무력 침공 안 한다·관세 부과 안 한다 발표하면서 일단락된 것 같지만 **그린란드 야욕은 절대 끝난 게 아니다**. 트럼프의 계획 아래 정말 그 일정표에 맞춰 흘러가고 있다.

트럼프 협상 방식은 과격한 제안(무력 침공)으로 상대를 흔들어 협상장에 끌어내는 것. 이미 나토·덴마크·그린란드 모두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 트럼프는 절반의 승리. **그린란드는 협상 대상 자체가 돼서는 안 되는데 협상장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게 이미 일정 부분 양보가 결정됐다는 의미다.

살라미 전법(얇게 썰어 조금씩 전진):

단계	내용
1단계 (현재)	그린란드 자원 독점권·우선 접근권
2단계	군사 기지 강화
3단계	매입 토지 점진 확대

트럼프 발언 핵심: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유익할 것이다" + "그린란드 포함한 골든돔 구상". **골든돔에 그린란드 포함 = 영토 야욕 명시**. 홍콩이 99년 뒤 결국 중국으로 반환된 것처럼 강대국이 시간을 들여 야금야금 먹는 패턴.

## 트럼프가 원하는 1순위 — 희토류

그린란드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첫 번째는 단연 **희토류**. 매장량 비교 (USGS 기준):

국가	희토류 매장량
중국	<b>4,400만 톤</b> (미국 압박 카드)
미국	190만 톤
그린란드 (공식)	150만 톤
그린란드 (추정)	<b>3,600만 톤</b> (미탐사 80% 영역)

그린란드는 80%가 동토 미탐사 지역. 두꺼운 얼음 아래 추정 매장량이 무려 3,600만 톤 — 특히 가장 중요한 **네오디뮴**이 미국 땅엔 별로 없지만 그린란드엔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첫 번째다.

↑ 2 강의 후 4개월 만에 그린란드 희토류 개발이 본격화됐다. 미국 **Critical Metals Corp**는 2026년 5월 그린란드 정부 승인을 받아 **Tanbreez 프로젝트 운영사 70% 인수** — Tanbreez는 디스프로슘·터븀·네오디뮴 등 중희토류(heavy rare earth) 매장량 기준 세계 최대 규모 광산 중 하나. 강기가 짙은 1월 7·15·22 발 빠른 움직임이 4개월 만에 70% 인수로 발전한 것. **사우디아의 50-50 합작 회사 (JV)**도 발표 — Tanbreez 생산량의 25%를 사우디에서 정제하는 비구속 합외. 다만 첫 출하는 2028년 말~2029년 초로 예상 — 강기가 짙은 삼각 동맹의 시간가는 강의 시점부터 약 3~4년의 진척 흐름이다.

## 미국·그린란드·사우디 삼각 동맹

희토류는 캘 배터도 **정제할 때 방사성 물질 등 위험 물질이 대량 발생**. 그린란드 사람들이 가장 반대할 게 자기 땅 정제. 그래서 사우디가 등장 — 자기 땅을 정제 시설로 내주겠다 (아차피 무인지대).

호주는 정제 기술이 서방 최고지만 환경 의식이 강해 거부하고 그린란드에서 너무 멀다. 미국·유럽도 인구 밀도·환경 이슈로 어려움. 사우디는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무인지대 → 물만 바닷물 정제해 해결하면 된다.

미국 기업 **Critical Metals**의 발 빠른 움직임 — 미국 정부와 모종의 딜 의심이 들 정도:

날짜	발표
2026-01-07	그린란드 현지 시범 공장 건설 계획
2026-01-15	사우디 15억 달러 규모 희토류 정제 시설 건설 합의
2026-01-22	그린란드 현지 시범 공장 비즈니스 쿨

날짜가 딱따박박 맞아 떨어지는 게 계획적이다. 중국과 패권 전쟁의 가장 약한 고리 = 희토류 → **미국+그린란드+사우디 삼각**으로 해결 시도.

## 그린란드 골든돔 + 북극해 핵심축

그린란드를 골든돔 계획에 넣겠다는 발표는 단순한 방어 시스템 편입이 아니다. **남의 나라 영토를 자기 방어 시스템에 넣겠다는 것 = 영토 야욕**. 자원 먹고 방어 시스템 안에 넣어두면 언제가는 그린란드를 침수선 뒤 또는 수심선 뒤에 먹을 수도 있는 것이다.

홍콩이 99년 전 영국에 임대했을 때 "진짜로 중국이 받아 가겠나"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중국이 받아 갔다. 강대국이 시간을 들여 야금야금 먹는 게 가능한 패턴이다. 골든돔에 일단 넣어 놓으면 미국의 핵심 방공망 설치가 가능해지고 **북극해 시대의 핵심축 = 그린란드·유럽·한국**의 놀라운 속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 한국 — 희토류 밸류 체인의 핵심

정제된 희토류를 미국이 직접 쓸까? 아니다. **대부분 한국 제조업에서 사용 → 완제품을 미국에 공급**하는 구조다. 그래서 그린란드 희토류 개발이 잘 진행돼 사우디에서 정제되면 그걸 우리가 중간재로 쓰는 흐름.

한국 입장에서는:

- **북극 항로 개척** = 핵심 인프라 - **그린란드 희토류 정제** = 가급적이면 한국 기술로. 사우디 같은 인구 밀도 낮고 환경 규제 낮은 나라(중동 무인지대)와 협력 - **정제 기술** = 미국·호주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우리가 정제된 걸 쓰는 입장이라 니즈를 가장 잘 안다. 밸류 체인 진입은 안보·투자 양 측면에서 중요

희토류 밸류 체인이 중국과 완전히 분리되면 미국 내에서 드는 기업들, 유럽이나 사우디의 머니 체인이 작동할 수 있다.

## 덴마크 국제 매도 1억 달러 = 잉크 한 방울

세 번째 질문은 덴마크 미 국제 매도 여파. 결론부터 — **금액이 아주 작다**.

항목	규모
덴마크 연금금 매각	<b>\$1억 ≈ 1,460억 원</b>
미국 전체 국제 시장 (유통)	<b>\$31조</b>
비중	<b>0.003%</b>

비유 — **바다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 정말 보이지도 않는 양. "전량 매각"이라는 표현이 화제성을 줬을 뿐 실제 충격은 0이다.

##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이유 — 동맹국 무기화 가능성 열림

다만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만 미 국제 팔고 금 사던 패턴이었는데 **이제 동맹국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강한 신호**. 그래서 그린란드 사례로 금값이 뛰었고, 무력 침공 안 한다 + 관세 부과 안 한다 발표 후에도 **금값 떨어지지 않았다** — 이미 큰 변화의 단초가 열렸다든 시장 인식.

↑ 4 회사 시점 이후 동맹국 미 국제 매각이 점점 본격화되는 흐름. 강의에서 언급된 덴마크 연금금은 **AkademikerPension**으로, 공식 사유는 "미국 정부가 정제 약속"했다. 베네티는 다보스에서 "Denmark is irrelevant"라며 무시했지만, 그 후 **스웨덴 Alecta**펀드는 2025년 초부터 누적 **\$7.7~8.8B의 미 국채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Moody's가 2025년 5월 미국 신용등급을 Aaa→Aa1로 강등**했고, 재정 우려와 트럼프 무역 정책 불확실성을 명시한 점이 강의 § 12 "동맹국 무기화 가능성 열림"의 직접 실현 사례. 잉크 한 방울 시작이 본격적인 물줄기로 발전 중이다.

시각	결론
1억 달러 자체	무의미 (잉크 한 방울)
가능성 열림	<b>유의미</b> (동맹국 무기화 가능)
트럼프 입장	우습게 보면 큰일 — 자꾸 싸우면 결국 달러·미 국제 인기 하락

## 본 회차의 걸 — 분석·신호 점검·관찰

본 회차에서 강사가 명시한 권고는 두 가지였다. **미국 시장은 금리(10년물)를 보고, 한국 시장은 환율을 봐라**. 그 외에 분석·신호 점검·관찰 톤이 압도적이다. 즉시 매수·매도 권유는 없으며, 강의 disclaimer ("매수·매도 권유 X")와 정합. 다음 본강의 part2\_01(채권과 금리)에서 베네티 단기채 정책과 신호등 톨북을 본격적으로 풀어줄 예정.

**ONE LINE**

**트럼프 중간선거 사활이 만든 의도적 과열장에서 살아있는 신호는 단 하나, 금리뿐입니다.** 미국에선 10년물을, 한국에선 환율을 봐야 한다는 게 강의 결론. 그린란드는 끝까지 않았고 — 미국·그린란드·사우디 삼각 동맹은 4개월 만에 70% 인수와 JV로 가시화. 덴마크 1억 달러는 잉크 한 방울이지만 동맹국 무기화 가능성이 열린 시대 — **스웨덴 Alecta** 누적 \$7.7~8.8B 매각이 그 흐름입니다.

↑ **회사 자료 보장**  
본 회차는 강의일(2026-01-26) 시점에서 약 4개월의 시간 경과 후 정리되며 다음 4개 외부 자료가 회사 메시지를 시간 연장·각도 확대·검증·반박·사태 후속의 4 패러다임으로 보장한다.

↑ **1 미국 10년물 4.38% (2026-05-08), 4.42% (5/12-13) — Advisor Perspectives / Trading Economics, 2026-05** (시간 연장)  
강기가 짙은 4.2% 수준에서 4개월 후 4.38~4.42%로 미세 상승. 베네티의 단기채 위주 발행에도 불구하고 장기채 금리가 자연히 위로 올라오는 흐름 → 강기가 지직한 위험 신호 매커니즘이 실시간 진행 중. 5% 임계점까지는 아직 거리 있으나 4.5% 노란불 경계는 멀지 않음.

↑ **2 Critical Metals Tanbreez 70% 인수 + 사우디 50-50 JV (2026-05) — The National / Seeking Alpha** (각도 확장)  
강기가 짙은 1월 7·15·22 발 빠른 움직임이 4개월 만에 정식 70% 인수로 발전. Tanbreez는 디스프로슘·터븀·네오디뮴 등 중희토류 매장량 세계 최대 규모. 사우디아와의 50-50 JV로 25% 정제 합의 — 강기가 짙은 미국+그린란드+사우디 삼각 동맹이 비구속 합의 형태로 가시화. 첫 출하는 2028년 말~2029년 초로 예상.

↑ **3 삼의 법칙 학계 관계 검증 + Richmond Fed SOS 신규 지표 (2025-07) — Richmond Fed Economic Brief** (검증·반박)  
강기가 "삼의 법칙은 노이즈"라고 한 이민 학계에 정합한 결과. 2024년 paper 결과 삼의 법칙은 침체(heavy) 후 4개월이 지나야 유효하며, 1950년 이래 최소 4번 false positive 발생. 2024년 trigger는 이민 급증으로 인한 false signal로 분석. Richmond Fed는 주간 실업급여 청구 데이터 기반 신규 지표 SOS를 2025년 7월 발표.

↑ **4 덴마크 AkademikerPension 51억 매각 + 스웨덴 Alecta 누적 \$7.7~8.8B + Moody's Aaa→Aa1 강등 (2025-05-2026-01) — CBS News / CIO** (사례 후속)  
강기의 잉크 한 방울 분석이 정합하면서도 후속 흐름이 본격화. 스웨덴 Alecta가 2025년 초부터 누적 \$7.7~8.8B의 미 국채를 매각. Moody's는 2025년 5월 미국 신용등급을 Aaa→Aa1로 강등(중정 우려·트럼프 무역 정책 불확실성 명시). 동맹국 무기화 가능성 열림의 직접 실현 사례 — 강기가 짙은 "트럼프가 우습게 보면 큰일" 진단이 시간이 갈수록 검증 중.

본 회차 콘텐츠는 강의의 분석과 강의 본문에 명시된 권고에 한정하며, 매수·매도 권유 아님.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수강생 본인.